축산업의 경영관리(Ⅱ)

민 경 래
<통나라모야 경영지도부정>

3. 경영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영관리란 저자분께서 간단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최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관리 방법이다. 그런데 이론의 기반으로 최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경영관리 방법에 대하여 조명한 바와 같이, 축산은 생물동물(생체동물)을 다루는 사업으로 경영관리에 부가가치를 부가하여 사항관리도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의 목적에 의한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경영관리가 철저하겠지만도 반일 사항관리가 불충분했다면 초기의 목적에 의한 최적의 이익을 얻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에서는 이전의 경영관리는 반드시 사항관리와 함께 행해져야 한다. 사항관리에 대한 문제는 축산과 여론분의 사항의 경험과 사례의 근거가 여론에 의한 지도에 달성된 데에 있어서 그 방법으로서의 경영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지난회에서 간단히 설명한대로 경영관리상 축산자는 할 일은

1. 양목한 자본을 가지고
2. 철저한 사항관리를 통하여
3. 최고의 생산비로
4. 최고의 이익을 얻는 것

이런 절을 달성하려면 요약의 가치가 사항 중 문제가 되는 것이 (1)억억계 하면 생산비를 최저로 전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문제인 것이 (2)억억계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보訧야 누군가 생산비를 최저로 전결하는 것이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란 것은 상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그럴지 못한 경우가 많으리라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나물에 더하거나 생산비를 최저로 전결한다. 그러므로 둘째로 누군가 생산비를 최저로 전결한다고 해도 결과의 가치 사업성과를 분석, 검토, 평가할때 생산비를 보다 전결할 수 있던 점이 있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둘 보다 낮은 생산비로 생산원가를 전결하지 못하였느냐는 점에 대해서 정도해보면 사업을 시작할때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이 저지었던 점을 들 수 있었고 또 사업기간중에 보다 합리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경영관리의 사업과 시작할때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다각적인 면에서 조언하면서 작성하고 그 계획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중 작무 없이 정해져 나가면서도 초기의 성과의 최적의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계획을 작성할때에 매우 유의해야할 점은 사업계획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작성되는 것이므로 사업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사항 즉 예를들면 사료가격의 변동 및 가격의 추세 축산물시장의 전망 및 산란기의 경우 사업기간동안의 산란율의 증감과 난가의 질적 변동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만 한다.

산란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22주령 낳기는 24주 내지 26주령에 사초탄을 시작하여 32주령에 사서 최고산란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 최고산란시기에 난가의 시장변동으로 판매가격이 떨어진
거로 멀어졌음을봐도 일치한다면 사업기간중 상당한 수익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또 다른 경우 부로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매년 재정적으로 부로일의 가격의 변동은 그 추세를 정확히 잡을 정도로 가격변동의 기복(起伏)이 심한 점을 파거수년간의 경험이 보여주어 쉽게 알 수 있다.

그 가장 큰원인은 수요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점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도이다. 물론 부로일의 수요가 늘어나 봄부터 시작하여 차츰 증가 했다가 봄을 기준하여 겨울철로 감소하는 점은 우리가 시중에 어떠한 상품에 따라서 쉽게 짐작할 수 있으나 수요기에 너도나도 없을 뿐이니 부로일의 초예취를 업사(습습) 시점으로서 시장출하기가 갑자기 대량utra져서 당황을 하거나 가격에 의한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부로일의 서면을 해본 사람은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부로일의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재생산에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청되니 이는 한사람 한사람 축산자 계개인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하며 양협회나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절로 일이나 축산업자 스스로라도 자기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는 업사 시기나 업사규범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오즈의 부로일의 가격은kg 당 350원 370원 방지로 올라간 원인을 분석해보면 사료영역의 높아지는 비율과 사료 가격의 상승과 축산업자 특이로 부로일 업자의 싸움작용에 영향을 주므로 축산수보란 그 유통치 하전에 감소되어 가격성의 경과를 낙폐함을 강조하는 것에 따른 적당하며, 이의 공급이 지속적이지 않아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를 점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한도로 감소하고 임익을 최저한도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축산 업자 누구나 적어도 1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험이 의하여 교훈적으로는 대충생산비나 판매가격에 대한 음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익수를 편리적으로 얻는 것만으로는 합리적 경영관리를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경영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업계획이나 사업운영과 경영의 모든 거래에 대한 점검이 정확한 기록이나 정확한 거래에 대한 기록만이 사업성과를 분석 검토 및 평가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기약 경영관리상의 자료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사업관리를 합리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더라도 사업의 모든 거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그 성과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기록을 하기 바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여 야마한 것이다.

만약 기록을 하긴 했으나 계속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업기간중의 거래 중 일부를 빠트리고 기록치 않았다면 이는 수고하고서도 날로가는 기록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할 때 1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여 사업기간중에 가정형성이나 또는 개개인의 사정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익계) 했을 경우 그것이 단 한번이나 두번에 걸쳐서 가져간 것이라면 그 일자리가 그 금액을 후에 기록할 수 있을지 모르고 자본금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일부씩 그리고 그에 따라 인출한금액 그 금액이나 일자를 기억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에 총수준자 자본금총액을 알수도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산물 판매가격이나 생산비중의 어느것간의 비용이라도 빠트르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수익금액에서 차질이 생길 것이고 또한 수익에서 차질이 생기므로 정확한 손익계산을 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주의할 것은 사업가 자기계정의 가계(家計)를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작지들은 우리 돈이다” 돈이 “밀이 끓어서 도 솔안에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사업상으로는 결례 금물이다.

농장경영에 투자된 자본도 축산업자인 경영자에 의한 돈이거나 자기 가계부상의 돈도 자기부임에는 틀림없이 자기 가계부상의 돈은 어디까지나 자기기신의 생활채소이 그것이 이익을 GENERATE
적으로 사업에 투자된 자본은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지출이 있어서도 자기계산의 목적에 따른 지출과 사업상 목적에 따른 지출도 일정히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농장자금증 일부비용 자기주머니에 넣고 나니가 축산물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경

매를 했다면 이는 본명하자 사업상 지출로서의 경

비이지만 자기계산을 떠나서 손을 떠겠다고 한다는

경우에는 이는 어디거나 자기 개인목적으

로 지출된 경우(私用)이지 경로 사업상 지출된

경비는 아니다. 이와같은 경우 자기가 사용

(私用)한 금액은 재무상·영업상이 그렇지 못하면

경영주인이 자기감 가필금(預備權)으로 처리되어

아마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소유임에는 통일 없는 독일

자도로 사업에 투자된 자본과 자기 사업계산과

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고 또한 지출도 사업상

지출과 사용(私用)으로의 지출을 명확히 구분

하여 기록하여야만 철저한 경영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경영관리에 최고의 비용으

로 최고의 이익과 달성하기 위하여 이익이 난은

경우보다 많은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어내는 것이고 순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용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방법을 개어

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두가지 원인

을 사업운영의 실질적인 수가식(數字的) 기록에서

만 분석, 발전해 달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정확

하게 정확하게 계산한 사업상의 모든 거래를 기록해

아마 인감 통장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거듭

장조하거나 사업상 발생하는 거래는 단 1일

자라도 빠짐없이 기록되어야만 하였다.

4. 축산업과 재무제표(財務諸表)

모든 사업이 그려듯이 축산업도 하나의 사업

임상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자본이란 경영주 계

인의 재산금과는 일정히 구분된다. 즉 아무리

경영주 자신의 재산이 많고 자본이라도 그것이 이익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되어 활용되지 않

는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주의 재산(財産)

이자 사업상의 자본이자 자산(資産)은 아니다.

자기계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에 투자했

을 경우 그 투자된 만큼의 액수만이 소위 자본

또는 자산이라고 볼리아는 것이다.

이와같이 사업에 투자된 자본은 그 규모의 대

소에 불문하고 반드시 외화계기로서 일정한 금

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축산업을 하는 본의 대부분이 자

기사업에 투자된 자본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는 본적 뿐만 아니라만 분말동안의 축산업을 해

온 결과 얼마의 순이익이 발생했으며 그중 얼마

의 순이익금이 자기사업에 재투자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본적 더욱이 도움. 이

모투가 사업을 비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오늘

날 구미 선진주의 가산계에 본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 그들은 사업을 하되 우리보다 합리적으

로 계획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해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높은 국민소득을 누리고 있는 것

이다. 우리도 이제는 근본적 사업운영법적으

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사업운영방법

은 개선해야 가야 될 것이다. 사업의 목적이 이

윤수주에 있을 인재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

은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재무제표란 사업에 투자된 자본의 상태 및 자

본의 출처를 표시해주는 대차대조표(貸借對照

表)와 일정한 기간동안의 사업의 성과인 순익을

나타내주는 순익계산서(損益計算書)를 통합

말하는 것이다.

5. 대차대조표란 무엇인가?

대차대조표는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의 사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상태를 차별(財殖)과 대

변(貸還)의 일정한 액수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대차대조표는 어느 사업이든 예를

들면 사업을 시작할 때나 또는 사업 운영기간중

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끝냈을때나 어느

때 그에 그때의 사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상태를 빠짐없이 일목요연하게 표시해준다. 

아무리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자본금이 적은 많

은 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 및 자

본의 종류가 많을지라도 이 대차대조표에는 빠짐
없이 간단명확하게 표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주의의 고수로 자세한 자세와 부잡한 것과 상해는 알려져 할때는 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로 모든 자기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움을 듯하다 보듯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대차대조표가 국화 사업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은 다음의 예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인 동으로 1층으로 동성하는 평판을 경쟁하다가 그동한 사람이 (을)이 사정에 의하여 중간에 사업에서 손을 떼게되었을 경우 이때 사업장의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계속하여 기록해 왔다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에 곤란한 일이며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자본금의 1/2과 그간의 사업비용의 성분인 이익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갑)을 (을) 상호 간에 원만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제무제표가 사업상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한 편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무제표에서 자산, 자본 부채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차대조표란 문자가 표기하는 그대로 차변과 대변의 대조표란 뜻이며 차변이란 대차대조표의 원천을 의미하고 대변이란 대차대조표의 요약된 것으로 한다.

자산이란 대차대조표 작성시에 차변측 오른편에 기록되는 것으로 자산은 사업에 투자된 자본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음으로 부채 및 자본은 사업운용에 사용되고 있는 자본을 누가 출자(出資)했느냐 하는 자본의 출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채란 사업에 투자되어 운용되고 있는 자본입니다는 둘리잡으나 그 자본의 출처가 경영주 자신이 투자한 것이 아니고 경영주 이외의 타인이나 외부로부터 차입된 자본을 말하며 자본이란 경영주 자신이 투자한 자자가 자본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채를 타인자본이라고도 한다.

사업장 제산이라고 하면 자산, 부채 및 자본을 통일해서 말하며 소득과 임의의 재산이라고 할 때는 자산만을 의미하게도 한다. <계속>